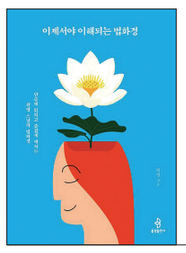
무거운 삶에 건네는 법화경 공부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스님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 네 번째
일상 비유로 '일불승 사상' 등 설명
입문자 위한 해설에 가독성 높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어떤 이는 걸핏하면 트집을 잡았다. "뭘 알겠느냐"며 차별심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억울한 비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악성 문자와 댓글은 끼니를 대신할 정도였다. 방송과 강의를 통해 불교를 대중 눈높이에 맞춰 전해온 원영 스님(서울 청룡암 주지)의 이야기다.

그럴 때마다 원영 스님은 상불경보살을 떠올렸다. 보살이 되기 전 비구였던 그를 싫어하는 이들은 조롱하며 돌을 던졌다. 늘 모욕을 당하고 때론 맞으면서도 비구는 성내지 않았다. 도리어 '당신은 꼭 성불할 것'이라며 수기의 축복을 건넸고, 이후 보살이 됐다. 원영 스님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을 펼치며 "상불경보살이 받은 조롱과 폭력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우리 내면의 저항이 아닐까"라며 "가정이나 직장, 또는 도량에서 누구에게라도 절할 마음으로 대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이 내용은 원영 스님이 최근 펴낸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에 수록한 글이다.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 아래 자신의 경험담은 물론, 경전 내용과 그 의미를 두루 살피며 제20 '상불경보살품'을 해설한다.

신간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은 〈법화경〉을 원영 스님의 시선으로 보다 친근하게 풀어낸 해설서다. 불교 입문자도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하다.

〈법화경〉은 '경전 중의 왕', '대승불교 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불교의 대표 경전이다. 하지만 7권 28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교리 탓에 초심자가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았다. 이에 스님은 입문자를 배려해 책의 구성에 공을 들였다. 책은 본격적인 〈법화경〉 해설에 앞서 각 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길잡이를 제공한다. 본문은 총 7장에 걸쳐 제1품부터 제28품까지 순차적으로 풀어낸다. 핵심 원문을 먼저 제시한 뒤 추상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스님이 직접 겪은 사연과 관련 일화를 더해 현대인이 마주하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불안을 살폈다. 일상에서도 경전의 가르침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어려운 용어는 개념을 따로 정리했고 중요한 내용은 별색으로 표기해 가독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본문 해설은 제1 '서품'부터 시작된다. 연꽃 중 최고인 백련처럼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법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에서 '〈묘법연화경(법화경)〉'이라는 정식 명칭이 붙은 배경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법화경의 핵심인 '일불승(一佛乘)' 사상은 제2 '방편품'에서 살필 수 있다. 모든 길이 하나의 부처가 되는 길로 모인다는 일불승은 성별, 나이,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3 '비유품'에서는 〈법화경〉에 나오는 일곱 가지 비유[법화칠유] 중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한다.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위험을 모른 채 놀고 있는 자식들을 구하고자 방편을 내어 탈출시키는 내용이다. 스님은 이를 두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 길이 맞는지 반신반의하며 절집에 깃들여 살았던' 여고 시절을 떠올리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제4 '신해품'으로 설명을 이어간다.

각 품의 설명에는 괴로움에 직면한 이들을 향한 스님의 따뜻한 시선이 곁들여진다. 자신의 업보가 무겁다며 삶을 한탄하는 이에게는 험난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생을 밝혀야 한다는 당부를 전하고 "제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이어도 부처님을 따르며, 불성을 믿고 수행하는 우리에게 퇴보는 없다"고 격려한다. 이를 위해 제8 '오백제자수기품'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배 구슬 같은 불성이 있음을 믿고, 단념 없이 성불하겠다는 염원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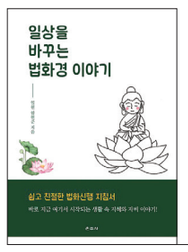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배신에 대해서는 제12 '제바달다품'에서 설명한다. 부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 제바달다에게조차 수기를 내려주며 업의 바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통해 원영 스님은 "부처님은 원한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비움으로써 업의 고리를 끊어버렸다"고 풀이한다.

삶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 차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게 된다"며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를 제13 '권지품'을 통해 역설한다.

스님은 제28 '보현보살권발품'에서 "불법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속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자비의 실천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고 전한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글에서 스님은 "제한된 자신에 머물지 말고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오히려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내 안의 부처 일깨우는 법화신행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함현준 지음
운주사
2만5000원

〈법화경〉 핵심 23개 주제 설명
실천법 · 명상 기도문 · 서원 구성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생활 속 신행의 길로 안내하는 책이 나왔다.

신간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는 기존의 학술·교학 중심 해설서에서 벗어나, 기도와 실천을 이끄는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다.

이 책은 〈법화경〉 연구와 신행에 천착해 온 저자 함현준 박사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누구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행 방법을 제시한다.

책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내 마음과 친해지는 법 △모든 것이 연결된 순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나다운 삶의 완성 등 총 다섯 가지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 안에서 저자는 지혜, 실상, 인연, 불성 등 23개의 주제어를 통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전한다. 불교 초심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썼고, 순서에 상관없이 마음에 와닿는 주제어를 골라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책은 불가사의한 진리의 힘인 '묘법'을 일상에서 마주하고 서로의 깊은 인연을 이해하며 모든 존재 안에서 부처님을 발견하는 방법 등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들려준다. 나아가 소제목을 통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아라"고 당부하며 "마침내 여래와 하나가 되어라"는 기원을 전한다.

주제별 이야기와 함께 〈법화경〉 관련 구절을 수록했으며, 여기에 마음가짐·일상 실천법·매일 밤 점검 질문·유의사항을 담은 '법화신행실천법'과 명상 기도문, 서원을 더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법화신행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각자 마음속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배희정 기자

30년 군포교 바탕 '초심자 불교 지침서'



AI도 훔쳐보는 불교문답
정우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2만2000원

132개 문답으로 푼 불교
"AI시대 불교 DB 되길"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쾌하게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책이 출간됐다.

30년간 군포교 최일선에서 청년 장병들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해 온 부산 무진정사 주지 정우 스님(사단법인 무진공덕회 이사장)이 신간 〈AI도 훔쳐보는 불교문답〉을 펴냈다.

책은 정우 스님이 2019년 1월부터 3년간 불교신문에 127회에 걸쳐 연재했던 '청년들을 위한 불교 기초강의' 원고와 봉화 축서사 사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해 총 132개의 문답으로 엮어낸 불교 기초 지침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 방식이다. 스님은 육군행정학교 남성사와 계룡대 호국사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들이 평소 불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다.

"불교는 우상숭배인가?" "절에 가면 왜 卍자를 쓰나?" "108번뇌는 왜 108개인가?" 등 사소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그대로 담겼다.

정우 스님은 6월 23일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훈련병들에게 일방적인 설법을 하기보다, 질문을 받고 그 대답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는 '즉문즉답'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원고지 8매라는 제한된 지면에 맞추다 보니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고 요점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책 제목에는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스님의 고뇌가 담겨 있다.

스님은 "다가올 미래에는 AI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대가 될 텐데, 이때 AI에게 제대로 된 불교 교리와 긍정적인 데이터를 학습시켜 두지 않으면 자칫 불교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웃 종교보다 한발 앞서 AI 세대에 맞는 불교 포교 전략 연구소를 설립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이 AI가 올바른 불교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돕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질문과 답변의 심플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안에는 30년 군포교 경험과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며 "말은 간결하되 뜻은 깊은 '요언불번(要言不煩)'의 경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법문"이라고 호평했다.

저자 정우 스님은 196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금선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90년 지관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응용불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30년간 17개 부대를 거치며 군포교 발전에 헌신했다. 2021년 11월 육군 군종실장(대령)이자 제38대 군종병과장으로 퇴역하기까지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2018), 대한민국 보국훈장 삼일장(2020), 미 국방부 훈장(2021) 등을 수훈하고 국가유공자로도 선정됐다. 〈씨앗법문〉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스님은 현재 부산 무진공덕회 이사장과 무진정사 주지를 맡아 팔리어 대장경 중심의 경전 공부와 도심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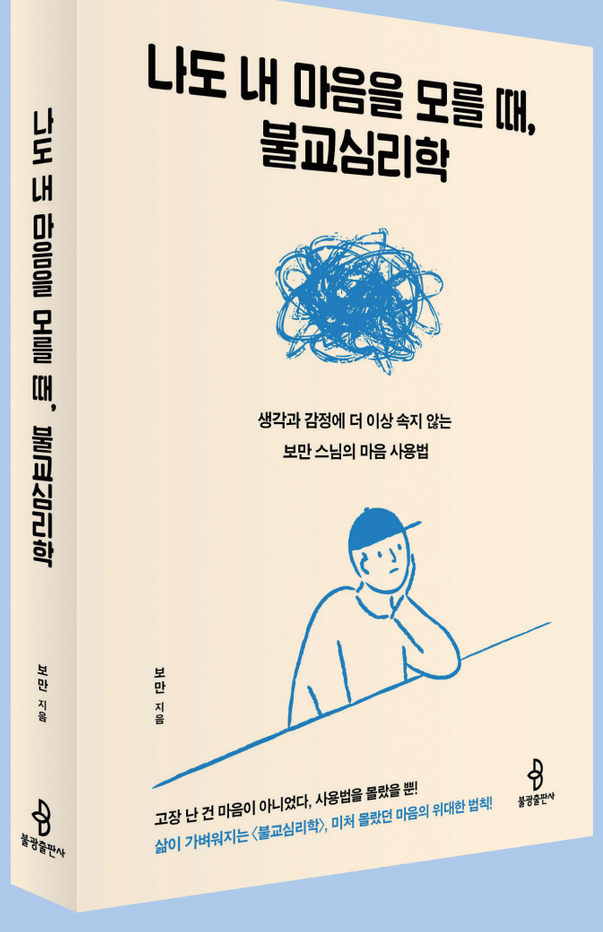
6월 23일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정우 스님이 책의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288쪽 | 19,000원

2026 교보문고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20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독자들이 선택한 마음 공부 안내서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서 이제는 스테디셀러로 거듭난 화제의 도서!
★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보만 스님 불교심리학 300만 조회, 5천여 댓글

"종교 서적인 줄 알았는데,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끊이지 않는 찬사! ★
• 카톨릭 신자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스님 말씀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 내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책, 너무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 저만 읽기에는 아까운 책이에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 이 책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아내고 싶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 평소 알고 있던 종교 서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